

## 진도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본격화

사업지구별 주민·전문가 참여 지역협의체 출범  
213억원 투입 창유·송군항 지역 특화 어촌 개발

진도군이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진도군에 따르면 어촌뉴딜 300 사업 사업계획과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전남연구원과 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신면 송군권역 어촌뉴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는 사업지구별 주민대표 6명과 전문가 2명, 공무원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사업 완료 후 운영 방안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체 임기는 사업기간 종료 후 3

년까지인 2023년까지이며 사업계획 수립 전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은 사업비 총 213억원을 투입, 어촌뉴딜 300사업 1차년도 사업 대상으로 의신면 송군항과 조도면 창유항을 선정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의신면 송군항은 해안도로 안전시설, 방파제, 물양장, 안전 망루, 해안데크, 부잔교 등 계류시설 등 소규모 어항 다기능화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어선 대피항 등으로 추진한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사위



진도군은 최근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송군권역 어촌뉴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진도군 제공

실, 여객차 승터, 관광안내소, 어구 공유 창고 및 수리실, 수상레저 장비 보관실 등을 조성한다.  
창유항은 피서리나항과 조도 해양홍보관, 마리나 부잔교,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해양 스포츠 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주변에 해상 산책·등산로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군 관계자는 “어촌뉴딜사업은 진도군 활기찬 어촌·어항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줄 것

기대한다”며 “2020년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진도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국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국책사업이다. /진도=박병호 기자

## 신안 임자도서 새우란 특별전

내일부터...150여점 선배

‘1004섬’ 신안에서 새우란의 향연이 펼쳐진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임자도에서 열리는 톨립축제 기간에 자생 난초인 새우란 특별전이 개최된다.  
새우란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자생하는 동양난으로 뿌리줄기의 모양이 새우를 닮아 명칭이 붙었다.  
새우란은 음식에서 자라지만 실내에서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꽃이 잘 피고 화색이 다양하고 은은한 향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별전은 신안군새우란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 자생난초의 우수성을 알리고 멸종위기 새우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금새우란, 한라새우란 등 새우란 원종과 몽화장, 화지조 등 교배종을 포함한 총 150여점이 선보인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새우란 등 멸종위기 자생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존할 것”이라며 “소득화 사업을 위해 신안군의 특색 있는 우수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영암군은 최근 함형국 스마트팜 농장에서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영암군 제공

## 목포 해양케이블카 개통 연기 신뢰회복 총력

메인로프 풀림현상 발견...전체 시설물 대상 안전 점검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이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케이블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전액 민자유치사업으로 당초 5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5일 사업 시행사인 목포해상케이블카㈜측이 ‘마지막 공정인 메인로프 연결과정에서 와이어로프의 미세한 풀림현상이 발견돼 부득이 개통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목포시에 통보했다. 시는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수용했다.  
목포시는 개통연기에 따른 안전문제를 비롯한 관광업계의 혼란과 시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 공사 중인 유달산승강장 등이 4월말에 완료되면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환경훼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주변 환경에 맞춰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히 원상복구한다.  
또 케이블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공 전까지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기관에 용역 의뢰해 안전진단단을 구성하고, 시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자 측과 함께 전국 관광업계에 사과의 글을 포함한 10월 개통계획을 담은 서한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도로 우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측에서는 목포지역 사



목포 고하도에서 내려다본 해상케이블카. /목포시 제공

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 또는 시민 탐승 요금 할인 폭 재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목포시는 모든 행정력을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케이블카 개통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꼼꼼한 협의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개통 연기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연기도 당장의 혼란과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임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 영암 스마트팜 육성 지원 현장 설명회

농업인 대상 저비용 조성 방안 모색

영암군은 지난 8일 서호면에 위치한 함형국씨 농장에서 스마트팜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온실환경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 제어되고 원거리에서도 농장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함형국씨는 “스마트팜 도입 후 수확량 증가와 노동력 절감 효과도 관행에 비해 30%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정보통신융복합 기술농업 붐

을 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팜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전동평 군수는 “군은 시설하우스 농사를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도입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어 미래농업을 견인하는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시작하려는 농업인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데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저비용으로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암=최복섭 기자

## 해남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

대출 금리 3% 3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해남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자가 해당 된다.  
대출받은 금리의 3%, 연 최대 200만원까지 3년 동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정서에 반하거나 사치향락적 소비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금융기관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한 후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해남군 경제산업과나 읍·면사무소,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남군청 경제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박병태 기자

## 목포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지원 탄력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목포시에서 추진해 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이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지난 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하는 효과를 얻기에는 기간과 지원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

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결정해 준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준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강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단합대회

강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은 최근 강진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친목 도모를 위한 단합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웃놀이, 투호, 축구, 배구 등 체육활동과 노래자랑 등으로 진

행했으며 경품 추첨과 다양한 선물 증정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윤세주 자조모임 회장은 “즐거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신안 생활교육 담당자 워크숍

신안교육지원청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지역 초중학교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자치문화를 활성화하기 위

해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포동중학교 박진환 강사가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고 목표와 가치를 세워 회의를 진행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진도 아리랑 체조교실 호응

진도군 보건소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 체조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는 전문 강사 14명을 초빙해

라인댄스와 건강 체조, 관절가동운동, 영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53개소에서 1,000여명의 회원들에게 연중 2회 실시된다. /진도=박병호 기자